

●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4년

추석
가정예배

대한예수교장로회 양산중앙교회

www.yangsanjungang.or.kr
경남 양산시 장동2길 14(북부동)
T. 055-386-2447 F. 055-388-2447

가족과 함께 하는 추석 가정예배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기 도 **가족중**

성경봉독 민수기 6:24-26 **다같이**

²⁴ 여호와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²⁵ 여호와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²⁶ 여호와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말 씀 ‘하나님의 복된 가정’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찬 송 559장 |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다같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기도문 **다같이**

● 말씀 | 민수기 6장 24-26절 ‘하나님의 복된 가정’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려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음의 세 가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키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에 대한 말씀을 주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하여 광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광야는 척박하고 위험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주지 않으시면 잠시도 머물 수 없는 곳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는 우리를 지키시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시고, 건강과 물질을 지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키시는 복으로 인해 우리 가족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추석 명절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의 인생 전반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속하시고 구원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시며,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기회를 얻어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한결같이 우리 삶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됩시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환경을 넘어서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곳에서도 마음 놓고 편히 쉴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하늘의 평강을 내려 주셨습니다. 오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만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늘 감사하며 사는 우리 가족이 됩시다. 우리의 삶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복 주시는 하나님을 늘 사랑과 충성을 다해 섬기며 자족하는 삶을 사는 우리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